지난해 8월 공간 효율화 사업이 시작된 이후, 경영대 오비스홀 3층 로비에는 학생 편의, 휴게시설이 들어섰다. (사진=박상희 기자)

효율성 높인 공간관리시스템 공간비용채산제도 확대 적용

박상희 기자 smtg7475@khu.ac.kr

#우리학교는 지난해 8월, 효율적 공간 관리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공간 효율화 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실용성 높인 '공간 규정' 올해 공개 예정, 유휴 공간 공용 공간화 사업도 기대/대학주보 1708호/2023.09.04.)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현재 공간 문제 개선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까. 공간관리 규정 개정 현황과 공간관리시스템 안착을 위한 움직임을 살펴봤다.

관리팀은 지난해 8월 공간 효율화 사업을 시작했다. 오비스홀 3층 로비에는 학생 편의·휴게시설이 들어섰다. 공실이었던 정경대 316호엔 학생 세미나실이 마련됐다. 치의학관 지하 4층 중앙 로비와 한의과대학 지하 2층에는 학생 휴게공간이 생겼고 호관대 1층 로비에는 편의시설이, 407호에는 스터디룸이 설치됐다. 청운관 2~7층 복도에는 테이블과 의자가 설치돼 휴게 및 자습 공간이 확보됐다. 의과대학 115호, 115-1~4호, 114-2호는 공용 공간 확보를 위해 현재 공사 중에 있다.

하지만 소통간담회에서 매번 나오는 음악대학 연습실 문제를 비롯해 예체능 계열 연습실 등의 개선은 더딘 상황이다. 연습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년에는 학생회관과 경희중·고 사이 공간에 2층 규모의 증축 계획이 마련됐다. 다만 관리팀은 한정된 예산으로 건물 증축이 당장 진행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신 공간관리시스템을 통해 기존의 공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관리시스템 논의 마무리 단계 오는 2학기, 의견수렴 위한 TF팀 마련 예정

공간관리시스템은 단과대별 학생 수, 교원 수, 직원 수, 강의실 수 등 기본 데이터를 바탕으로 일정 공간을 배정해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총무관리처 손용기 처장은 "A라는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공간을 대여해줬는데 프로젝트가 끝나도 이 사실이 보고되지 않아 공간 반납이 어려웠다"며 "만약 공간관리가 시스템화된다면 객관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프로젝트가 끝나는 시기에 맞춰 반납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간 효율화 사업이 진행된 호관대 1층 로비 휴게시설 (사진=박상희 기자)

공간관리시스템은 현재 기본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상황이며, 실제 실행을 위한 논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기본 데이터만으로 예측할 수 없는 단과대별 특수성이 있어 이를 반영하고 구성원 의견 수렴을 위해 오는 2학기에는 관련 TF팀이 구성될 예정이다. 손 처장은 "단과대별 학생과 교원 수 등 필수적인 자료만 가지고 데이터를 넣어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다"며 "예체능 계열에 필요한 연습실이나 이공 계열에 필요한 프로젝트 등 각 단과대가 가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의견을 받는 작업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공간관리시스템이 안착하면 교내 대여 시스템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관리팀은 공간관리시스템이 도입된다면 대여가 가능한 공간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손 처장은 "현재 인포에서 대여 가능한 곳은 몇 군데 안 되지만 공간관리시스템에는 교내 모든 건물의 공간이 입력되기 때문에 개방되는 공간 또한 늘어날 것"이라며 "다만 어디까지 개방이 될지는 각 단과대 및 학생 대표와 소통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공간관리시스템은 스마트캠퍼스와도 연계될 예정이다. 손 처장은 "학생이 공강 시간을 보낼 공간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았다"며 "공간관리시스템을 스마트캠퍼스에도 접목해 학생이 스마트캠퍼스에 올라온 빈 공간을 확인한 후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간관리규정 개정 공간 공유 개념과 공간비용채산제 도입

관리팀은 공간관리시스템이 마련된 이후 공간관리규정 개정도 마무리될 것이라 내다봤다. 개정될 공간관리규정의 핵심은 '공간비용채산제' 도입과 '공간 공유 개념'이다.

공간비용채산제란 배정된 기준 면적을 초과해 사용한 이에게 일정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현재는 약학대학과 이과대학에서 시행 중이다.

약학대학 김동준 행정실장은 "교수가 배정된 교수연구실과 실험실을 초과한 공간이 필요하면 이를 제공하고 비용을 받는 것"이라며 "교수 외부 연구비로 납부하고 있고 이를 공간 개선 등 약대 발전을 위해 쓰고 있다"며 해당 제도가 공간의 효율적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공간관리규정 초안은 완성된 상태다. 개정은 공간비용채산제 확대 범위와 구체적인 사용료 기준 단가가 결정된 후 완료될 예정이다. 손 처장은 "공간관리시스템이 돌아가야 규정을 완성할 수 있어 공간채산제의 액수와 같은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간관리시스템 안착과 함께 공간 공유 관련 구성원 인식 변화도 수반돼야 한다. 손 처장은 "공간은 어떤 특정 대학의 소유물이 아니고 대학에서 공유해야 하는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총무관리처 한덕영 부처장 또한 "부족한 공간을 외부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내부 공간 조정을 통해 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전했다.